LOCAL 강진 치유관광 활용…도시재생 활로 찾는다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장성, 9급 공무원 신규 채용 총 16명…15일까지 원서접수

장성군은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9급 공무원 16명을 신규 채용한다.

군은 결원 등에 따른 행정 공백 최소화 를 위해 자체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시행 직렬별 채용 인원은 공업(전기) 2명, 녹 지(산림자원) 2명, 환경(일반환경) 2명 시설(일반토목) 10명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된 다. 27일 필기시험, 10월 1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채 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장성의 성장과 군 민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갈 유능한 인재들 의 도전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목포, 관광업계 목소리 청취 관광수용태세 점검 협력 강화

목포시가 관광업계 목소리 청취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8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외식・숙박・ 여행・소상공인 대표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업계 대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9월 목포항구축제를 시작으로, 10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 회, 목포문화유산야행, LPGA BMW 골프대회 등 하반기 대규모 행사를 앞 두고 관광업계와 함께 관광수용태세를 점검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친절·위생·안전·착한가격 실천 협조 요청, 관광수용태세 확립 결의 대회 동참 및 분위기 조성 협력, 행사 대 비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 논의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다가올 대규모 행사 들은 목포를 대내외에 알릴 절호의 기회 이자 관광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며 "관광객이 체감하는 친절한 응대, 음식의 맛과 품질, 숙소의 청결, 교 통과 편의시설의 편리함이 곧 목포의 이 미지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 부드린다"고 말했다.

목포=성명준 기자 tjdaudwns@gwangnam.co.kr

군, 빈집 수리 마을호텔 조성 등 체류형 관광 모색 숙박·체험·서비스 결합 패키지 상품 개발 등 계획

을 모색했다.

8일 군에 따르면 최근 병영면사무소에 련됐다. 서 '치유관광을 통한 지역재생'을 주제로 한 도시재생대학 특강을 개최했다.

광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 해 숙박과 체험을 결합한 마을 단위 치유

강진군이 치유관광으로 도시재생 방안 고, 도시재생과 관광을 연계한 지속가능 한 지역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

제인 '빈집을 고쳐 마을호텔로 조성하는 사 이번 특강은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관 업'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통

형 관광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개설됐다.

교육 과정은 치유관광의 개념과 국내외 사례, 치유농업과 농촌체험관광, 치유공 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 치유관광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과제 발굴 워크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제정과 웰 니스 힐링을 중시하는 치유관광 트렌드 교육은 병영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과 확산에 따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형

군은 앞으로 병영면 도시재생사업을 통 주도의 지속 가능한 지역재생 전략을 실

해 조성되는 마을호텔을 거점으로 숙박형 치유관광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운영 모델 마련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번 특강을 시작으로 주민교 관광을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한 방안으로 계적으로 추진해 치유관광과 도시재생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구체화하고, 주민

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마을호텔은 단순한 숙박 위해 숙박·체험·서비스가 결합된 패키지 공간을 넘어 치유관광과 결합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농가와 연계한 치유 체험 확 중요한 지역재생 자원이다"며 "앞으로 주 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모델을 만들어 강 진만의 특색 있는 치유관광 콘텐츠를 육 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유형 농촌관광은 농촌의 치유 육, 전문가 자문, 시범사업 발굴 등을 단 적 요소가 담긴 체험과 관광을 통해 스트 레스를 해소하고, 심신 회복과 건강 증진 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강진=이진묵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신안 공영장례 제도, '전국 최초' 인정 받아

정부 혁신 최초·최고 인증패 수상…"선도적 복지정책 강화"

신안군은 최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 최고 인증패 수여식'에서 '공영 장례'를 국내 최초로 인증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8 고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일 밝혔다.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한 혁신 사례 중 '최초'와 '최고'의 제도다.

스 마실에서 열린 '2025 정부혁신 최초· 초로 도입한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 자의 장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

열악한 지역 여건 속에서 사회적 배려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 주관 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고인의 존엄 유 으로 진행된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지,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공동체적 연대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했다.

가치를 지닌 정책을 선정해 인증하는 역자치단체와 217개 기초자치단체가 조 례를 제정하거나 제도를 운영하기에 이르

핵심 시책으로 자리 잡았다.

군은 선도적으로 도입한 복지정책이 대 군의 공영 장례는 2007년 5월 전국 최 한민국 전역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점 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이번에 인증패를 받게 됐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군 에서 시작된 공영 장례제도가 전국으로 확산해 소외된 이 없이 모두가 존엄을 지 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 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 전반을 이 제도는 전국으로 확산, 현재 15개 광 아우르는 선도적인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365일 꽃피는 진도' 조성 속도

군, 생활권 내 녹지경관 정비

꽃과 숲을 누리는 '365일 꽃피는 진 게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농공단지와 진도항 일원 등 대

지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꽃모종 31만

절마다 다채로운 풍경을 선사 중이다. 특히 백조호수공원 꽃길과 운림산림 욕장 수국 공원에는 형형색색의 꽃과 진도군은 군민 모두가 사계절 내내 수국이 만발해 군민들과 관광객들에

또 군은 주요 도로변 가로수길 5개 8일 군에 따르면 365일 꽃피는 진 소(연장 길이 46km)의 풀베기 작업을 도 만들기 사업은 생활권 내 녹지 경 진행하고, 가로수 5248주의 가지치기 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시책이다. 를 진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경관 으로 조성 중이다. 이울러 소공원 24 규모 꽃단지 10개소를 포함해 총 28 개소(28만1727㎡)와 주민단체 참여 만4832m² 규모의 꽃길, 꽃동산, 꽃단 숲, 도시숲 26개소(11만9750m²)도 정비해 군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시행

장성, 1인당 10만원 지급

흥공단에서 공동 추진하는 '어르신 스포

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 주민에게 1인 당 5만원 상당의 스포츠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을 2장씩 총 1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되는 상품권은 전국 '제로페이 가 맹 체육시설'에서 사용 가능하다.

공공시설인 장성실내수영장부터 개인 장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 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콜센터 (1551-9998)에 전화로 접수하거나 공식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